

목적어인상구문의 주변자질 이동: 숙어를 이루는 주어의 목적어인상을 중심으로*

이두원
(충주대학교)

Lee, Doo-Won. 2008. Edge Feature Movement in the Subject-to-Object Raising Construction: With Reference to Idiomatic Subject-to-Object. *Linguistic Research* 25(3), 65-81. Idiomatic elements cannot be assigned focus (Yang 2008). The Subject-to-Object Raising induces the discourse effect (i.e., D-effect) of focus, which is the factor that makes the idiomatic meaning disappear (Lee 2008). Chomsky (2005) proposes that all A'-movements are solely induced by the edge feature (EF) of a phase head, which is the so-called EF-movement. This is based on his (2001) proposal that optional operations can apply if they have an effect on outcome (i.e., D-effect). This paper argues that the raised object should undergo Chomsky's (2005) EF-movement to the upper Spec-v*. This is a non-argument position. That is, the raised object is not in the argument position of the higher clause; hence, its accusative Case marker should not be dropped. In this paper, it is also noted that at the colloquial speech, Subject-to-Object Raising can occur with the stage level predicate as well as the individual level predicate; hence, the idiomatic meaning disappears. (**Chungju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Accusative Case, D-effect of Focus, EF-Movement, Individual / Stage Level Predicate, Subject-to-Object Raising

1. 서론

Chomsky (2005)는 ‘모든 비논항이동(A'-movements)은 국면핵(phase head)의 주변자질(edge feature, EF)에 의해서 유인된다’는 국면이동가설 (phasal movement hypothesis)을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변자질이동이론은 “수의적 이동이 필연적으로 D-효과(discourse effect 또는 output effect, D-effect)를 유발한다” (Optional operations can apply only if they have an effect on outcome (i.e., D-effect)는 Chomsky (2001)의 주장에 근거한다. 이 논문에서는 영어의 ECM-구문과는 달리 한국어의 목적어인상(Subject-to-Object Raising) 구문에서 인상된 목적어는 Spec-v*로 주변자질이동을 겪는다고 주장한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충주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이다. 초고는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008 봄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되었다. 익명의 논평자들의 제안과 지적을 반영하였으며 그들의 논평에 감사한다.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저자의 몫이다.

이것은 인상된 요소는 초점의 D-효과가 나타난다는 Lee(2008)의 주장의 외연적 주장이다. 접합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연산은 “주변자질이동의 각 연쇄가 하나의 D-효과를 지닌다”(Each chain of EF-movement contains one D-effect)는 Yang(2008)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위절에서 술부와 숙어를 형성하는 주어가 목적어인상을 겪을 때, 이것은 상위절 국면의 핵 v*의 주변자질 EF에 의해 Spec-v*로 이동하여 초점의 D-효과가 나타나서 숙어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 이렇게 숙어를 형성하는 주어가 그 자리를 이탈할 때 숙어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루는 기본 취지이기도 하다.

한국어의 목적어인상구문 (1b)에서는 (1a)의 숙어의미가 사라진다:

- (1) a.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숙어의미: 아는 것이 없고 실속이 없는 사람이 더 요란하게 잘난척 한다.
 b. 철수는 **빈 수레를** 더 요란하다고 믿는다.
 (숙어의미 사라짐)

(1b)의 밑줄친 인상목적어는 초점의 D-효과를 보인다. 다음에서 보듯이 숙어를 이루는 주어가 이동없이 그대로 주어 위치에 쓰이면 그 문장은 숙어의미를 유지한다. 구어체에서는 주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 (2) a. 빈 수레 더 요란해. (구어체)
 b. 철수는 빈 수레 더 요란하다고 믿어. (구어체)

(2b)의 주격조사가 비실현된 ‘빈 수레’는 하위절 주어로 쓰일 수 있지만 다음 (3)의 목적어 인상구문에서는 쓰일 수 없다.¹⁾ 인상구문에서는 반드시 대격조사(accusative Case)가 실현되어야 한다. 예문 (3)의 문법성 대조가 이를 보여준다:²⁾

- (3) a. 철수는 (어리석게도) [CP 빈 수레 더 요란하다고] 믿어.
 b. *철수는 빈 수레 어리석게도 [CP t 더 요란하다고] 믿어.
 (목적어인상구문)
 c. 철수는 빈 수레를 어리석게도 [CP t 더 요란하다고] 믿어.
 (목적어인상구문)

구어체에서 격조사가 비실현된 주어는 하위절 주어로 쓰일 수 있지만, 목적어인상을 겪을 때는 (3c)에서처럼 그 인상목적어는 대격조사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하위절 주어

1) ‘격 탈락’은 격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에 ‘격 비실현’은 그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박정섭 2008 참고).

2) (3)에서 ‘어리석게도’는 상위절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가 상위절의 비논항 위치인 Spec-v*로 이동하고 PF에서 실현된 대격조사는 탈락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어에서 하위절이 개별층위(상태술부, individual-level)일 때 뿐만 아니라 (Lee 1995, Yoon 2004), 구어체에서 하위절이 단계층위(비상태술부, stage-level predicate)일 때 도 목적어 인상이 허용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계층위술어와 속어를 이루는 주어가 목적어인상을 겪을 때 속어의미가 사라짐을 또한 살펴 볼 것이다.

2. 속어³⁾

먼저 2장에서는 속어의 쓰임을 살펴보겠다. 노용균 (2002)은 두 가지 원리, 즉 통사적 생산성과 의미 합성 원리로 속어를 판별한다. 그에 의하면, 통사적 생산성이 높은 구성은 일반적인 통사 규칙들에 의해서 그 내부 구조가 결정되는 구성들이고 따라서 의미합성원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구성들이다. 통사적 생산성을 구성소들이 의미합성원리를 준수하는가의 여부로 속어 여부를 판별한다.⁴⁾ 즉, 속어는 어구나 한 문장이 그것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본래 단어 의미와 관계없이 전체로서 또 다른 뜻을 나타내어 관습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다 (빠산자브 락바 & 최기호 2004 참고). 가령, 우리말에 ‘시치미’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매의 주인을 밝히려고 주소를 적어 매 꼬리 위의 털 속에 매어둔 네모진 뿔을 말한다. 자기의 매라는 것을 적어 둔 표시이다 (빠산자브 락바 & 최기호 2004): 이 ‘시치미’에 ‘떼다’를 붙이면 관용어로 ‘시치미 떼다’가 된다. 이것은 매 사냥을 하다가 매가 다른 동네에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매를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갖고자 시치미를 떼어 버리는데서 유래했으며, ‘시치미 떼다’라는 말은 ‘알고도 짐짓 모른체하거나 일을 하고도 안한 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어이다.

(1a)와 (2a)도 하나하나의 본래 단어 의미와 관계없이 전체로서 또 다른 뜻을 나타내어 관습적으로 쓰이는 속어이다. 한국어의 경우 속어에는 신체에 관계되는 속어가 흔하다: 가령 ‘손’이라는 단어는 ‘크다’라든지 ‘씻다’라는 말이 붙어서 새로운 어구나 문장을 이루며 여기서 새로운 의미를 파생하여 관습적으로 널리 쓰여 왔다 (빠산자브 락바 & 최기호 2004):

- 3) 속어는 그 민족의 특성과 그 사회의 민속, 역사, 풍습 등을 담고 있고 굳어진 비유적 표현방법을 사용하며 구비적 성격이 강하다 (빠산자브 락바 & 최기호 2004).
 4) 구체적으로 속어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노용균 (2002)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i) C 를 어휘범주들의 집합, L 을 어휘소들의 집합, I 를 형태통사적 성질들의 집합, A 를 굴절접사들의 집합, SYN 을 생산적인 통사규칙의 집합, SEM 을 SYN 의 각 규칙들에 대응하는 의미규칙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다음 성질을 갖는 연쇄체 $s \in \{C \cup L \cup I \cup A\}^*$ 는 속어이다:
 a. 조합 s 를 기술하는 $\sigma \subset SYN$ 이 존재하지 않는다.
 b. s 의 의미를 기술하는 $\sigma' \subset SEM$ 이 존재하지 않는다.
 c. s 는 SYN 의 규칙들에 언급되는 종착 교점 또는 비종착 교점과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d. $|s| \geq 2$

즉, 어떤 통사적 결합체가 그 결합체를 형성하는 각 구성소의 개별의미의 조합으로 그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그 결합체가 다른 의미를 형성할 때, 이것을 속어라고 한다.

- (4) a. 손+크다 → 손이 크다
 속어 의미: 사람 됨됨이가 커서 사물이나 재물을 다루는 데서 씹씀이가 푼푼하다.
 b. 손+씻다 → 손을 씻다
 속어 의미: 관계를 끊다. 부정적인 일에 대한 관계를 청산 하다.

2.1 보어 속어

위에서 살펴 본 ‘시치미를 떼다’와 ‘손을 씻다’를 비롯하여 다음은 목적어, 즉 보어와 속어를 형성하는 예들이다:⁵⁾

- (5) a. 물을 먹이다: 의도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꼴탕을 먹이다.
 b. 약을 올리다: 화나게 하다.
 c. 엿을 먹이다: 남을 꼴탕 먹이거나 속이다.
 d. 오리발을 내밀다: 자기의 잘 못을 숨기고 탄청부리다.
 e. 죽을 쑤다: 일을 망치다.
 f. 코를 꺾이다: 구속을 받다.

2.2 주어 속어

다음은 한국어 주어속어의 예들이다:⁶⁾

- (6) a.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b.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아는 것이 없고 실속이 없는 사람이 더 요란하게 잘난척 한다.
 c.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직접 못 한다.
 d. 본 놈이 도둑질 한다: 무슨 일이든 알아야 할 수 있다.

5) 영어에서 보어(목적어)가 동사와 속어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예가 ‘죽다’ 의미인 kick the bucket이다. 이처럼 목적어와 속어를 형성하는 영어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 (i) a. cross the river (죽다)
 b. blow (stir) the coals (화를 부채질하다)
 c. eat my hat (hands, boots) (목을 내놓다)
 d. bite the tongue (침묵하다)
 e. pay no mind (무시하다)
- 6) 다음은 영어에서 주어가 속어의미를 형성하는 예들이다 (Aarts 2001):
- (i) a. The coast is clear.
 (=There is nobody or nothing to hinder us)
 (아무도 방해하는 자가 없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b. The fat is in the fire.
 (=Something has been done from which adverse consequences can be expected) (이젠 어찌할 수 없다)

- e.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실력이나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잘난체하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게 한다.

3. 보어숙어와 주어숙어의 초점 담화효과

3.1 대격조사와 초점

다음에서 보듯이 보어숙어의 대격조사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숙어의미는 유지된다:

- (7) a. 물 먹이다.
- b. 약 올리다.
- c. 옛 먹이다.
- d. 오리발 내밀다.
- e. 죽 쑤다.
- f. 코 꺾이다.
- g. 시치미 떴다.
- h. 손 씻다.

‘약 올리’, ‘오리발 내밀어’의 예들을 비롯하여 (7)의 예들도 구어체에서는 대격조사의 비실현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보듯이 숙어를 형성하는 한 요소인 목적어에 초점의 D-효과가 주어지면 숙어의미는 사라진다(Yang 2008) (밑줄 친 부분은 초점의 D-효과를 나타낸다):⁷⁾

- (8) a. 물(을) 먹이다.
- b. 약(을) 올리다.
- c. 옛(을) 먹이다.
- d. 오리발(을) 내밀다.
- e. 죽(을) 쑤다.

7) ‘물도 먹이다 / 물만 먹이다’에서 보듯이, 강조 또는 초점 표시자인 ‘도’나 ‘만’이 숙어를 이루는 목적어에 쓰이면 숙어의미는 사라진다. 그러나 익명의 논평자가 지적하는 다음 예에서 보듯이, 초점관련 조사들이 숙어 요소에 불더라도 숙어의미는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 (i) a. 철수는 오리 발만 내민게 아니라, 영희한테 뒤집어 씌우려 했어.
- b. 영희는 발은 넓지만 실속은 없어.
- c. 너 참 발도 넓다.

이렇듯 숙어요소가 초점 관련 조사들과 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글의 주된 논점은 숙어요소가 초점이 주어질 때, 그 숙어의미 유지 여부이다. 나아가, 앞으로 지적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숙어를 형성하는 주어는 초점 관련 조사들과 함께 쓰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 f. **코(를)** 꺾이다.
- g. **시치미(를)** 떼다.
- h. **손(을)** 씻다.

3.2 주격조사와 초점의 담화효과

주격조사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숙어의미는 유지된다. 이것을 주격조사 비실현으로 간주하겠다. 박정섭 (2008)이 지적하듯이, 격조사의 탈락은 본래 격조사가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에 격조사의 비실현은 이러한 전제를 달지 않는다. 즉 다음 구어체에서처럼 본래부터 격조사없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⁸⁾

- (9) a. 도둑 제 발 저려.
- b. 빈 수레 (더) 요란하네.
- c. 중 제 머리 못 깎어.
- d. 본 놈 도둑질해.
- e. 선무당 사람 잡네.

즉, 구어체에서 주격조사가 비실현된 주어는 주어위치 (즉, [Spec, TP])에 있다고 본다; 주어는 술부와 여전히 숙어의미를 형성한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숙어를 이루는 주어에 초점이 주어지면 숙어의미는 사라지고 글자 그대로의 해석만이 나타난다 (밑줄친 부분은 초점을 나타낸다. 주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요소가 주제(topic)로 기능하는 예는 앞으로 보일 것이다.):⁹⁾

- (10) a. 도둑 제 발 저려.
- b. 빈 수레 (더) 요란해.
- c. 중 제 머리 못 깎어.
- d. 본 놈 도둑질 해.
- e. 선무당 사람 잡네.

8) 그러나 앞으로 지적하겠지만 문어체에서 격 조사가 없는 주어는 CP의 지정어위치에서 기저생성된다고 보겠다. 앞으로 보일 (10)과 (13)의 예문들은 문어체의 예들이다. 따라서 논평자가 지적하듯, (9)의 구어체 주어와 (10)과 (13)의 문어체 주제는 배변집합상에서부터 다른 통사적 속성을 갖는다.

9) ‘도둑도 / 만 제 발 저려’의 구어체 표현에서 보듯이, 강조 또는 초점 표시자인 ‘도’나 ‘만’이 숙어를 이루는 주어에 쓰이면 숙어의미는 사라진다.

3.3 배번집합상의 숙어형성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구어체에서 숙어를 형성하는 주어나 목적어는 격 실현 여부에 관계 없이 숙어를 형성한다. 이것은 접합면인 PF 이전 배번집합(enumeration)상의 배열에서부터 주어나 목적어는 숙어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격 조사가 없이 숙어를 형성하는 주어나 목적어는 격 조사 실현으로 숙어의미가 형성된 후 격 탈락을 겪은 것이 아니고 본래 배번집합상에서부터 숙어의미를 형성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흔히 구어체에서 하위절 주어의 격 조사가 비실현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11a)가 바로 이러한 배번집합상의 배열이 그대로 PF에까지 유지된 예이다. 문어체인 (11b)의 하위절주어와 인상구문인 (11c)의 인상목적어는 PF에서 격이 실현된 예들이다:¹⁰⁾

- (11) a. 철수는 빈 수레 더 요란하다고 믿어. (구어체)
- b. 철수는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고 믿는다. (문어체)
- c. 철수는 빈 수레를 더 요란하다고 믿어. (인상구문)

주목할 점은 (11a,b)의 하위절 주어는 그대로 주어위치에 있어서 숙어의미를 지니지만, (11c)의 하위절 주어는 상위절로 목적어인상을 겪어서 숙어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다.¹¹⁾ 숙어의 요소가 이동을 겪을 경우 숙어의미가 사라지는 현상은 앞으로 또 다른 실례들을 들어 살펴 볼 것이다.

3.4 숙어요소의 이동 여부

다음 (12)의 예들이 보여주듯이 숙어를 이루는 보어(목적어)는 이동할 수 없다:¹²⁾

- (12) a. 영희가 물을 철수에게 먹였다.
- b. 영희가 엿을 철수에게 먹였다.
- c. 영희가 오리발을 철수에게 내밀었다.
- d. 철수가 죽을 작년에 쑤었다.
- e. 철수가 시치미를 영희에게 떼었다.
- f. 철수가 손을 어제 씻었다.

10) 문어체에서보다 구어체에서 격 조사의 비실현이 더욱 자유롭다. 그럼에도 (11c)에서처럼 구어체의 인상목적어구문에서는 인상목적어는 반드시 격 조사가 실현되어야 한다.

11) 앞으로 살펴 볼 것처럼, 인상목적어는 하위절 주어위치로부터 상위절로 이동하고 이 때 실현되는 인상목적어의 대격조사는 탈락할 수 없다.

12) 다음 예에서처럼, 숙어를 이루는 목적어가 문두로 이동하는 경우도 물론 숙어의미가 사라진다:

- (i) a. 물을 영희가 철수에게 먹였다.
- b. 오리발을 영희가 철수에게 내밀었다.

V'는 보어와 동사가 숙어를 형성하는 범주이다 (영어는 Marantz 1997, Karimi 2003, 한국어는 Lee 2007b 참고). (12)의 예들은 이것을 위반한다. 숙어를 형성하는 보어가 V'밖에 위치할 수 없다.

다음 문어체 표현에서 주격조사가 비실현된 주어는 주제로 기능한다 (박정섭 2008 참고):

- (13) a. 도둑 제 발 저린다.
 b. 빈 수레 더 요란하다.
 c. 중 제 머리 못 깎는다.
 d. 본 높 도둑질 한다.
 e. 선무당 사람 잡는다.

이 글에서 숙어를 이루는 주어는 그 숙어 의미를 그대로 지니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취지에서 (13)의 주어는 [Spec, TP]가 아닌 [Spec, CP]에 있다. 따라서 (13)의 예들은 숙어 의미가 사라진다. 이것은 다음 (14)의 예들이 더 이상 숙어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¹³⁾

- (14) a. 도둑은 제 발 저린다.
 b. 빈 수레는 더 요란하다.
 c.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다.
 d. 본 높은 도둑질 한다.
 e. 선무당은 사람 잡는다.

즉, 한 예를 들어, (13a)와 (14a)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5) [_{CP} 도둑(은)] [_{TP} pro 제 발 저린] 다]

다음의 예들에서 보듯이, 숙어를 이루는 보어와 주어는 각각의 대격과 주격의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 (16) a. *영희가 철수에게 물이 먹였다.
 b. *영희가 철수에게 오리발이 내밀었다.
 (17) a. *도둑을 제 발 저린다.

13) 한 논평자는 다음과 같이 맥락이 주어지면 (14c)는 숙어 의미가 유지된다고 논평한다:

(i)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만 니가 꼭 그렇구나!
 그러나 다음과 비교하면 (i)의 '중은'은 여전히 주제 의미로 쓰임을 알 수 있다.

(ii)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더니만 니가 꼭 그렇구나!
 그럼에도 (i)이 숙어 의미로 인지될 수 있는 것은 부정어인 '못'이 주제어와의 작용 때문인 듯 하다.

- b. *작은 고추를 맵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한국어 숙어요소는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보인다:¹⁴⁾

- (18) a. 숙어요소에 초점(focus)이 주어질 수 없다.
- b. 숙어요소는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c. 숙어요소는 격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4.3 목적어 인상구문에서 Chomsky (2005)의 국면이동

Chomsky (2005)는 ‘모든 비논항이동(A'-movements)은 국면핵(phase head)의 주변자질(edge feature, EF)에 의해서 유인된다’는 국면이동가설(phasal movement hypothesis)을 주장한다. 그 적용이 수의적일 때, Chomsky의 주변자질이동은 초점, 특성성, 주제와 같은 담화 효과, 즉 D-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접합면(interface (PF, LF))에서 주변자질이동을 인허해 주는 주변자질이동 연쇄조건(19)를 산출해 낸다 (Yang 2008):

- (19) 주변자질이동의 각 연쇄는 하나의 D-효과를 지닌다.
(Each chain of EF-movement contains one D-effect.)

주변자질이동 연쇄조건은 언어연산에 대한 최적의 해결을 제공한다. 최종 국면의 주변으로 이동한 요소는 접합면에서 초점과 같은 D-효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주변자질이동 연쇄조건은 접합면 조건이다. 그러나 연속순환이동시 중간 과정에서는 이러한 D-효과가 해석될 정보가 없다(흔적은 담화효과가 없다.). 그래서 연속순환이동의 중간 위치에서 최후수단원리(last resort)나 자질점검(feature checking)에 대한 논란은 없어진다. 따라서 Chomsky (2005)에서는 종래의 이동을 유발하는 비해석자질은 더 이상 설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연속순환이동시 중간 과정의 파탄(crash)에 대한 문제는 사라진다. 요약하면 Chomsky는 연속순환이동이 나타난다고 가정하더라도 (20)에 따라 주변자질이동을 설정하면 비해석자질 점검의 문제는 해소된다고 주장한다:

- (20) 모든 비논항이동들은 국면핵의 주변자질에 의해서만 유인된다. (All A'-movements are solely induced by the edge feature (EF) of a phase head, i.e., EF-movements.)

14) Yang (2008)은 일본어 숙어자료를 통해 (18a)를 언급하고 있다. (18b)는 양동휘 교수(p.c.)가 언급한 바 있다.

즉, 이 비논항이동들은 모두 주변자질이동이다.

한국어의 장거리 부가어 이동이 또한 이를 입증해 준다 (Yang 2008):

(21) [_{CP} 내일_i [_{TP} John-이 [_{CP} t_i [_{TP} t_i 비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어의 연속순환이동은 일치나 형태자질점검(morphological feature checking) 없이 국면핵에 의해 그 이동의 동기가 부여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변자질이동은 “수의적 이동이 필연적으로 D-효과를 유발한다” (Optional operations can apply only if they have an effect on outcome (i.e., D-effect))는 Chomsky(2001)의 주장에 근거한다.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다루게 될 영어의 ECM-구문과는 달리 한국어의 목적어인상 구문의 인상된 목적어는 바로 이러한 Chomsky의 주변자질이동을 겪고 따라서 인상된 요소는 초점의 D-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찰한다.

목적어인상구문에서 숙어를 이루는 주어가 목적어인상을 겪을 때, 이것은 국면의 핵 v*의 주변자질에 의해 상위절 Spec-v*로 이동하여 초점의 D-효과를 나타내고 숙어의미는 사라진다. 다음 (22b)와 (23b)에서 보듯이 인상된 목적어는 상위절 동사로부터 의미역을 받지 못한다.¹⁵⁾¹⁶⁾

- (22) a. 영희는 작은 고추를 맵다고 생각한다.
 b. #영희는 작은 고추를 생각한다.
 (23) a. 영희는 사과를 맛있다고 믿는다.
 b. #영희는 사과를 믿는다.

다음 인상구문의 문법성의 대조는 인상된 목적어가 상위절에 있음을 보여준다 (Lee 2007a:43):

- (24) a. 철수는 그가 똑똑하다고 믿는다.
 b. 철수는 자기_i를 / *그_i를 똑똑하다고 믿는다.

15) #는 동사가 목적어를 선택(select)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인상된 목적어가 초점의 D-효과를 갖는 것은 다음을 통해 입증된다:

- (i) A: 영희는 무엇이 맵다고 생각하니?
 B: 영희는 작은 고추가 맵다고 생각해.
 (ii) A: 영희는 무엇을 맵다고 생각하니?
 B: 영희는 작은 고추를 맵다고 생각해.

의문사 ‘무엇’은 초점으로 쓰일 수 있지만, 주제로 기능할 수 없다. 따라서, (iiA)의 답변인 (iiB)의 ‘작은 고추를’은 주제가 아닌 초점으로 쓰인다고 보아야 한다. 인상 목적어가 주제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익명의 심사자 논평은 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더라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는 (iiB)의 인상목적어는 반드시 격 조사와 함께 쓰여야 하며 이것은 목적어인상의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16) 한 논평자가 지적하듯이, (22b)와 (23b)는 선택제약(selectional restriction)을 위반한다. 그러나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22a)와 (23a)의 인상동사는 인상된 목적어를 대상역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위치는 상위절 비의역 위치인 v*의 지정어로 본다.

이 논문에서는 (24a)의 ‘그가’는 하위절 주어위치에 있어서 결속원리 B를 준수하지만 (24b)의 인상목적어 ‘그를’은 상위절에 있어서 결속원리 B를 위반한다고 본다. (24b)의 조응어는 상위절에서 주어에 결속된다.

(22)와 (23)에서 보여주듯이 인상목적어는 상위절 동사의 의미역 위치에 있지 않다. 즉, (22a)와 (23a)의 인상된 목적어는 상위절 동사의 목적어 위치 (즉, 의미역 위치)에 있지 않다. 여기서 이 위치를 상위절의 비의미역 위치인 Spec-v*로 가정한다. 앞으로 보이겠지만, 비의미역 위치의 대격조사는 탈락할 수 없다. 언급했듯이, 인상목적어는 국면의 핵 v*의 주변자질에 의해 상위절 Spec-v*로 이동하여 초점의 D-효과가 나타난다.

하위절에 시제와 외현적 보문자(complementizer)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25b)처럼 하위절이 CP라는 증거이다 (자세한 것은 Yoon 1991, Yoon 1996, Lee 2007b를 참고할 것):

- (25) a. 철수는 영희가 똑똑했다고 믿었다.
- b. 철수는 [CP 영희가 똑똑했다고] 믿었다.

따라서 목적어인상구문 (11c)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6) 영희는 빈 수레를 [CP t_i 더 요란하다고] 믿어.

(26)의 인상된 ‘빈 수레를’은 CP를 넘어서 이동한다. 여기서 기존의 (11a)로부터 세 가지 차이점이 발생한다. 첫째는 인상된 목적어가 대격이 실현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상된 목적어가 CP를 넘어서 상위절로 이동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상위절로 이동한 ‘빈 수레를’에 초점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주목할 점은 PF에서 대격이 실현된 인상목적어가 비의미역 위치에 있어서 대격 탈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 목적어인상구문에서 목적어인상의 동인은 무엇인가? 배변집합상에서 하위절 주어는 격이 실현되지 않은 채로 배열되어 있으면서 그 하위절 주어는 상위절 Spec-v*로 목적어인상을 겪을 때 주변자질이동에 의해 초점의 D-효과가 촉발된다. 이 논문에서 영어의 ECM 요소가 하위절 주어위치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영어의 ECM요소가 이러한 D-효과를 지니지 않아서 주변자질이동을 겪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27) a. John believes that Mary is smart.
- b. John believes [_{TP} Mary to be smart].¹⁷⁾

따라서 목적어인상구문에서 ‘빈 수레를’의 이동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된다:

17) 영어의 ECM 구문은 ECM 동사가 ECM되는 목적어를 내포하는 하위절을 CP(S')가 아닌 TP(즉 IP, S)로 취한다 (Chomsky 1981, 1995, 2001).

- (28) 영희는 [_{VP} 빈 수레_i를 [_{CP} t'_i [_{IP} t_i 더 요란하다고] 생각한다.
(밑줄 친 부분은 초점의 D-효과가 부여됨)

대격 실현은 접합점인 PF에서 이루어진다 (Marantz 1991, 양동휘 2008 참고). 따라서 ‘빈 수레’는 목적어인상을 겪을 때, PF에서 ‘빈 수레가’가 아닌 ‘빈 수레를’로 실현되고 초점의 D-효과가 나타난다. 그 결과 속어의미는 형성되지 않는다. 이때, 인상목적어는 논항 위치 (A-position), 즉 하위절 주어위치에서 그 이동을 시작하지만 비논항위치(A'-position)인 [Spec, CP]를 통하여 상위절 비논항위치인 Spec-v*로 이동한다.

양동휘 (2008)에 의하면, D-효과의 부여는 (30)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주변자질이동성의 연쇄조건 (29)와 일치해야 한다:

- (29) 주변자질이동성의 각 연쇄는 하나의 D-효과를 지닌다.
(30) a. [_{CP} John_i we should not invite t_i to our party].
b. [_{CP} John_i you will decide [_{CP} t_i that we should not invite t_i to our party]].
c. [_{CP} John_i I hope [_{CP} t_i that you will decide [_{CP} t_i that we should not invite t_i to our party]]].
(밑줄 친 부분은 초점이나 주제의 D-효과가 그 위치에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점의 D-효과는 (29)에 따라 기착지에서 (30a,b,c)가 보여주는 것처럼 주변자질이동을 겪은 John에 실현된다. 주변자질이동성의 연쇄조건인 (29)는 다음과 같은 타당성을 갖는다 (양동휘 2008): 첫째, (29)는 “수의적 이동은 필연적으로 D-효과를 유발한다”는 Chomsky (2001)의 주장에 근거한다. 둘째, D-효과는 PF/LF에서 국면마다 음성 및 의미 해석을 받는다. 셋째, D-효과는 흔적에 나타나지 않는다 (음성적 D-효과가 흔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따라서 음성적 효과가 없는 D-효과는 의미적 D-효과를 갖지 않는다). (30c)를 보자. John은 세 개의 주변자질이동 연쇄를 형성하면서 기착지까지 연쇄이동하는 과정에서 세 개의 순환이동을 겪는다. 그러나, (30c)의 도출에서 (29)에 의해 그 D-효과는 흔적을 남기고 계속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즉, 기착지의 John만이 D-효과를 나타낸다). D-효과는 협의통사부(narrow syntax)에서가 아니라, 접합면에서만 부여되고 해석된다. 위로 이동하는 John은 기착지에서 초점으로 해석된다.¹⁸⁾ 이것은 (30a,b,c)가 보여주는 바이다.

다음 예에서 보듯이, 인상목적어는 계속 주변자질이동을 겪을 수 있다. 이때 (31b,c)가 각각 보이듯이 각 연쇄는 하나의 D-효과를 보인다:¹⁹⁾

18) (30b,c)의 John은 상황에 따라서 주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초점의 D-효과만을 다룬다.

19) ‘어리석게도’는 상위절 동사 ‘생각하다’를 수식하는 부사이고 그 앞으로 이동한 ‘자기의 누나를’은 상위절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 (31) a. 철수가 어리석게도 자기의 누나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b. 철수가 [_{VP} 자기의 누나를 (어리석게도) [_{CP} t_i [_{IP} t_i 예쁘다]-고] 생각한 다.²⁰⁾²¹⁾
 c. [_{CP} 자기의 누나를 [_{TP} 철수가 [_{VP} t_i 자기의 누나를 (어리석게도) [_{CP} t_i [_{IP} t_i 예쁘다]-고] 생각한] 다]

(31c)의 조응어는 주어에 결속되기 위해 Spec-v*로 재구성된다.

만약 (11a)의 하위절 주어인 ‘빈 수레’가 상위절 Spec-v*로 주변자질이동을 겪지 않는다면, 숙어의미를 지닌 상태로 PF에서 하위절 주어위치에 주격이 실현되고 숙어의미는 그대로 유지된다:

- (32) 철수는 [_{CP} [_{IP}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고] 믿어.

4.4 목적어인상과 격실현

한국어에서 하위절이 개별층위(상태술부, individual-level)일 때, 목적어인상이 자유롭다고 보고되었다 (Lee 1995, Yoon 2004). 실제로 하위절이 개별층위일 때, 위의 목적어인상구문들이 보여주듯이 목적어인상은 자유롭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구어체에서 하위절이 단계층위(비상태 술부, stage-level predicate)일 때도 목적어 인상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²²⁾

- (33) a. 나는 [_{CP} 영희 일찍 왔다고] 생각했어.
 b. ✓나는 영희를 [_{CP} t 일찍 왔다고] 생각했어.
 (34) a. 나는 [_{CP} 영희 일찍 왔다고] 판단했어.
 b. ✓나는 영희를 [_{CP} t 일찍 왔다고] 판단했어.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하위절이 단계층위일 때 구어체에서 목적어인상이 허용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 하위절 숙어구문에서 목적어인상이 일어나는 예를 보자 (이 논문에서 문

20) 인상된 요소는 [Spec, CP]를 통해 상위절 Spec-v*로 이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 이동은 A'-이동이다. Kim(2005)이 지적하듯이 물론 이동의 시작점은 A-위치이다. 그러나 이것이 A'-이동에 어떤 저해요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A-위치에서 A-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에 A'-위치인 [Spec, CP]를 통하여 이동한다는 논지로 Lee(2007b)에서 지적한 논항이동의 국부성 위반 문제는 사라진다: 이 논문에서는 인상목적어의 기착지는 상위절 A'-위치인 Spec-v*이다. Lee(2007b)에서는 인상목적어의 이동의 동인이 구조적 접점이고 이것으로 인한 이동은 A-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Lee(2007b)의 주장을 재고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21) 독일어의 특정성의 D-효과로 인한 Spec-v*로의 국면주변자질이동은 Putnam(2007)을 참고할 것.

22) 다음에서 보듯이 하위절 부가어가 인상될 수 있다:

- (i) a. 나는 [어제 비 왔다고] 생각했어.
 b. ✓나는 어제를 [비 왔다고] 생각했어.

이것은 단계층위의 하위절로부터 인상이 허용된다는 증거이다. ✓는 구어체에서 문장이 수용적이라는 의미이다.

법성 표기 ?는 구어체에서 수용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사용된다):²³⁾

- (35) a. 나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믿어.
 b. ?나는 도둑을 제 발 저린다고 믿어.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 있고 속어의미 없음)
- (36) a. 나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생각해.
 b. ?나는 중을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생각해.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 있고 속어의미 없음)
- (37) a. 나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믿어.
 b. ?나는 선무당을 사람 잡는다고 믿어.
 (글자 그대로의 의미만 있고 속어의미 없음)

앞서 구어체에서 속어를 형성하는 주어의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인상구문에서 대격조사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인상된 목적어는 보충어위치가 아닌 지정어 위치인 Spec-v*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의 관찰은 ‘격 조사는 지정어 위치에서 탈락할 수 없다’는 홍용철 (1994, 2004)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²⁴⁾

김영희 (1999)는 동사의 의미격 자질로부터 의미격을 부여받는 명제격 명사구는 무표격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근거하여 격 조사가 탈락하는 경우는 논항이라고 보겠다 (최기용 2008 참고). 인상목적어의 하위절 주어위치의 흔적(t)은 하위절 주어 의미역을 지니고 상위절로 이동한 인상목적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의미역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인상목적어의 대격조사가 탈락할 수 없는 이유는 인상목적어가 상위절의 비논항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각각 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다음의 예들은 각각 위 예문들의 대응구문들이다:²⁵⁾

- (38) a. 나는 도둑 제 발 저린다고 믿어. (하위절 주어)
 b.*나는 도둑 (어리석게도) 제 발 저린다고 믿어. (인상목적어)
- (39) a. 나는 중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생각해. (하위절 주어)
 b.*나는 중 (어리석게도)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생각해. (인상목적어)

23) 아마도 목적어인상을 겪은 (35b), (36b) 및 (37b)가 좀 어색하게 여겨지는 것은 (33b)와 (34b)에서와는 달리, 인상된 목적어가 특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이 이를 보여 준다:

- (i) a. ✓나는 그 도둑을 제 발 저린다고 믿어. (글자 그대로의 의미)
 b. ✓나는 그 중을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생각해. (글자 그대로의 의미)
 c. ✓나는 그 선무당을 사람 잡는다고 믿어. (글자 그대로의 의미)

24) 위에서 보았듯이 구어체에서 주격조사‘가’가 비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박정섭 (2008)이 지적하듯이, 이것은 본래 격 자질은 있으나 그것이 음성적 격 조사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이다.

25) (38)-(40)의 대조는 또한 속어를 이루는 주어가 이동하면 속어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적어 인상구문에서 인상된 목적어는 격 교체(Case-alternation)가 일어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속어를 이루는 요소는 격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구어체의 속어를 이루는 주어의 목적어인상으로 이를 검증한다.

- (40) a. 나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믿어. (하위절 주어)
- b. *나는 선무당 (어리석게도) 사람 잡는다고 믿어. (인상목적어)

대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인상목적어구문은 비문이다. 이것 또한 다음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⁶⁾

- (41) a. *철수가 자기의 누나 어리석게도 예쁘다고 생각한다.
- b. *자기의 누나 철수가 어리석게도 예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42)에서처럼 숙어를 형성하는 주어는 주어위치에 있을 때만이 숙어의 의미가 유지된다:

- (42) a. 빈 수레 더 요란해. (구어체)
- b.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숙어를 이루는 주어가 주제 또는 초점의 담화효과를 지닐 때는 숙어의 의미가 사라진다:

- (43) a. 빈 수레는 더 요란하다.
 - b. 빈 수레도 / 만 더 요란하다.
 - c.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 (밑줄 친 부분은 초점(focus) 요소임)

(43a)의 ‘빈 수레는’이 CP의 지정어에 위치하는 화제(topic)로 쓰인다 (Lee 2005 참고). 강조를 나타내는 ‘-도 / 만’이 붙은 (43b)의 ‘빈 수레도 / 만’이나 (43c)의 강조표현 ‘빈 수레가’는 [Spec, CP]에 위치한다고 본다 (Yang 2008 참고). 따라서 주어가 주어위치 [Spec, IP], 즉 [Spec, TP]에 있지 않고 [Spec, CP]에 있기 때문에, (43)의 예들은 숙어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42)의 ‘빈 수레’는 주격조사와 함께 쓰이면서 초점이나 주제와 같은 담화적 요인이 개입되지 않을 때, 그 문장은 숙어의 의미를 지닌다. 이 관찰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영어에서 술부와 숙어의 의미를 이루는 요소인 주어가 ECM될 때는 그 의미가 유지되는 데 반하여, 한국어에서 술부와 숙어의 의미를 이루는 요소인 주어가 목적어 인상을 겪을 때는 숙어의 의미가 사라지는 현상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목적어인상을 겪을 경우 인상목적어는 세 가지

26) (41b)의 ‘자기의 누나’가 주제로 쓰이는 경우는 수용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제로 쓰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조용어구는 상위절 주어인 ‘철수’에 의해 결속되기 위해 재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41b)의 ‘자기의 누나’가 상위절 [Spec, CP]에서 기저 생성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요인, 즉 숙어요소들의 이동, 격 전환 및 초점의 D-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그 문장은 숙어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현상을 고찰하였다.

하위절 주어의 목적어 인상을 겪을 때 PF상에서 대격이 실현되면서 Spec-v*로 주변자질이 동을 겪고 초점의 D-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인상목적어의 대격은 탈락할 수 없다. 이것은 지정어위치에서는 격 조사가 탈락할 수 없다는 홍용철 (1994, 2004)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인상목적어가 주어 및 보어와는 다르게 반드시 격의 실현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희 (1999)는 동사의 의미적 자질로부터 의미격을 부여받는 명제격 명사구는 무표격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근거하여 격 조사가 탈락하는 경우는 논항이라고 보았다(최기용 2008 참고). 인상목적어의 하위절 주어위치의 흔적(t)은 하위절 주어 의미역을 지니고 상위절로 이동한 인상목적어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의미역 위치에 있다. 따라서 비논항 위치의 인상목적어 대격조사는 탈락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김영희. 1999. “사격표지와 후치사”. 『국어학』 34, pp.31-58.
- 김주영. 2004. 『고사성어와 속담』. 서울: 눈과 마음 스킨타운.
- 노용균. 2002. 『한국어 기본 숙어 사전』. 한국문화사.
- 박정섭. 2008. “한국어의 격표지 실현과 이탈어 구문”. 『생성문법연구』 18(3), pp.415-438.
- 빠산자브 라바, 최기호. 2004. 『한국어와 몽골어의 관용어 대조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 정태룡. 2000. 『토속어·성숙어 사전』. 서울: 우석.
- 최기용. 2008. “한국어의 의미격 조사: 내재격(inherent Case)의 실현인가 아니면 의미의 실현인가”. 『한국생성문법학회 2008년도 가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4-40.
- 홍용철. 1994. “융합이론과 격조사분포”. 『생성문법연구』 4(1), pp.1-43.
- 홍용철. 2004. “한국어의 격조사 탈락과 격조사 부재”. 『프랑스어문연구』 18, pp.295-314.
- Aarts, B. 2001.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Hampshire, England: Palgrave.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MA: MIT Press.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ase*. In *Ken Hale: A Life in Language*. ed. by M. Kenstowicz. 1-52. The MIT Press.
- Chomsky, N. 2005. *On phases*. Ms.. MIT.
- Karimi, S. 2003. *On Object Positions, Specificity, and Scrambling in Persian*. In S. Karimi (ed.), *Word Order and Scrambling*. 91-124. Malden, Mass.: Blackwell.
- Kim, C. 2005. *Raising to Object in Korean*. Ms.. University of Delaware.
- Lee, J.-S. 1995. *The Role of Case in Exceptional Case Marking*.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5(1), pp.265-318.
- Lee, D.-W. 2007a. *Structural Case-driven Object Shift of ECMed Nominals out of the CPs*. *The*

-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5(1), pp.39-64.
- Lee, D.-W. 2007b. Case Licensing of the ECMed Nominal by a Light Verb.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9(1), pp.205-224.
- Lee, D.-W. 2007c. Janusian Idioms: with Reference to Theme + Null Postposition vs. Theme + Lexical Verb. *Studies in Modern Grammar* 49, pp.21-48.
- Lee, D.-W. 2008. ECM vs. Subject-to-Object of Idioms: with Reference to Discourse Effect. *Linguistics Studies* 12, pp.123-134.
- Marantz, A. 1991. Case and Licensing. *ESCOL*, pp.234-253.
- Marantz, A. 1997. No Escape from Syntax: Don't Try Morphological Analysis in the Privacy of Your Lexicon. *U. of Pen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2), pp.201-225.
- Putnam, M. 2007. *Scrambling and the survive principle*. Amsterdam: John Benhamin Publishing Company.
- Yang, D.-W. 2008. On Edge Feature Movement. Ms. MIT.
- Yoon, H.-J. 2004. ECM in Korean. *Studies in Modern Grammar* 3, pp.27-58.
- Yoon, J. 1996. Ambiguity of Government and the Chain Condit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4, pp.105-162.
- Yoon, H.-J. 2007. Raising of Major Arguments in Korean and Japanes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5, pp.615-653.
- Yoon, J.-M. 1991. *The Syntax of A-Chains: A Typological Study of ECM and Scrambling*. Ph. 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이두원

충주대학교 인문사회예술대학 영어학부

충북 충주시 대학로 72

380-702

전화: 043-841-5499

E-mail: dwlee@cjnu.ac.kr

접수일자: 2008. 11. 05

수정일자: 2008. 12. 06

계재일자: 2008. 12. 11